

“‘노고추’의 짱짱한 살림살이 통해 구도 힘 얻으세요”

소설가 정찬주



나의 몸은 본래 없는 것이요
마음 또한 머물 바 없도다.
무최소는 달을 물고 달아나고
돌사자는 소리 높여 부르짖도다.

2001년의 마지막 날 오전 10시 23분, 조계종 제10대 종정 해암당 성관 대종사가 상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임종계를 남기고 원적에 들었다. “공부하다 죽어라.” 승가와 재가를 구별하지 않고 오로지 공부하다 죽으라고 서릿발 같이 독려했던 해암 대종사의 생애는 끝없는 정진으로 일관됐다.

해인사로 출가한 27세 때부터 누워서 잡자지 않고 하루 한끼만 먹는, 이른바 장좌불와와 일종식을 철저히 지켰던 해암 대종사. 오래 달아서 뽀족한 송곳은 주머니에 감추어도 밖으로 그 끝을 드러내듯 해암 대종사도 선기와 가르침이 날카로웠다. ‘노고추(老古錫)’였던 해암 대종사는 종단의 크고 작은 분열이 있을 때에도 산문을 박차고 나와 종도의 화합을 위해 몸을 아끼지 않았던 현대 한국불교의 사표다.

아직도 많은 불자들에게 생생하게 기억되는 해암 대종사의 짱짱한 생애가 소설로 되살아난다. 이미 성철 스님과 일타 스님의 생애를 소설로 조망했던

도자들의 흔적을 바라보면서 큰스님을 떠 올린 것은 역사속의 수행자들과 제가 만났던 큰스님의 모습이 같은 것으로 느껴졌기 때문일 겁니다.”

– ‘가야산 정진불’은 실존했던 인물과 현재 살아 계시는 분들이 등장하는 실명소설인데 그만큼 해암 대종사의 삶을 구체적으로 취재해야 가능하지 않을까요?

“실명소설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소설로서 허구성은 어느 정도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문제는 큰스님의 생애를 얼마나 잘 묘사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고, 큰스님의 유훈을 간절하고 명료하게 전달하기 위해 얼마나 설득력 있게 이야기판을 짜느냐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 소설을 쓰기 위해 큰스님 상좌스님들을 비롯해 주변의 많은 인물들을 직접 만났습니다. 자료도 모아 두었고요. 진주 호국사의 성법 스님, 원당암 감원 원각 스님, 강진 백련사 주지 여연 스님, 고양 흥국사 주지 대오 스님, 보성 봉갑사 각안 스님을 비롯한 문도 스님들이 이 소설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주십니다. 또 큰스님을 모시고 공부했던 재가불자들도 증언과 자료를 챙겨줘 큰 도움이 됐습니다.”

– 해암 대종사의 흔적을 찾아 답사하신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네, 2년 여 동안 부지런히 다녔습니다. 지리산 상무주암과 도솔암, 문수암은 큰스님께서 수행하시면서 중창하신 도량들입니다. 큰스님께서서는 빈 절터에 수행하기 좋을 만큼 불사를 하시고는 바로 다른 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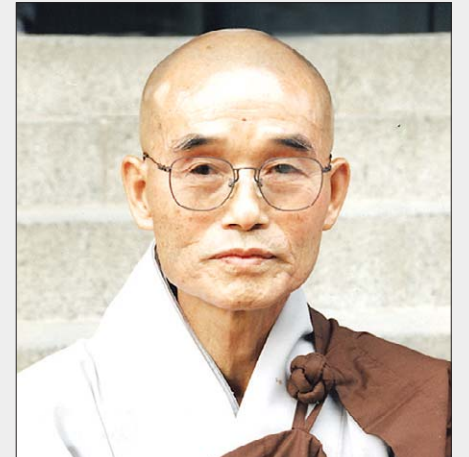
‘현대불교’에 해암 스님의 일대기를 소설로 연재할 정찬주 작가는 “두타행자로서의 해암 스님을 조명하고 싶다고 밝혔다.”

만큼 소설의 전개방식은 중요합니다. 이 소설은 한 사람의 나레이터를 통해 전개될 겁니다. 자신의 존재에 대해 근원적인 의심을 일으킨 현대인을 상징하는 나레이터가 이야기를 이끌어 가는 병렬식 소설인 셈이지요. 그러니까 이 소설을 읽는 독자들은 결국 나레이터와 일체감을 이루게 될 때 큰스님의 진면목을 알게 되겠지요. 그렇게 되면 큰스님이 간절하게 가르치신 것을 알게 될 것이고 그것은 다시 정진하는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독자들께서 소설을 읽으시면서 수시로 저를 경책해 주시길 바랍니다.”

임연태 기자 mian1@hanmail.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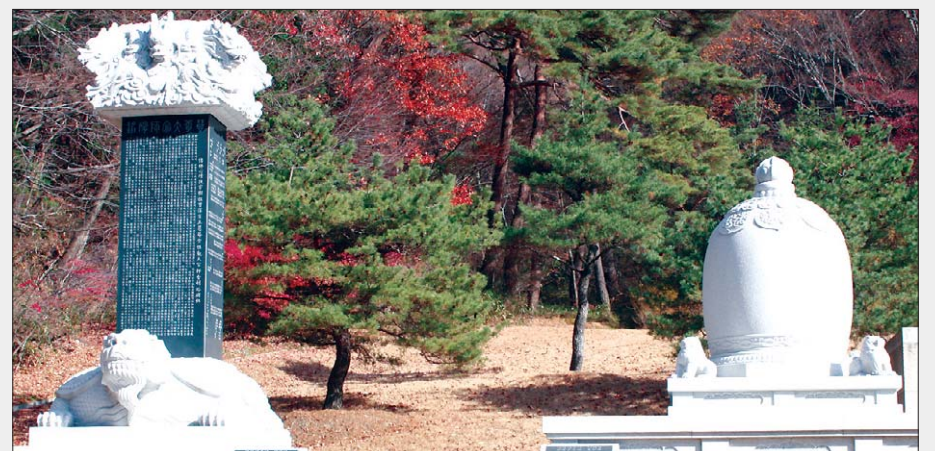
해암 스님 연보

- 1920년 3월 22일 전남 장성군 장성읍 덕진리 출생.
- 1945년 일본 유학.
- 1946년 합천 해인사에서 인곡 스님을 은사로, 효봉 스님을 계사로 수계득도.
- 1947년 문경 봉암사에서 결사.
- 1948년 해인사에서 상월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 수지.
- 1949년 범어사에서 동산 스님을 계사로 보살계 수지.
- 1951년 인곡 은사로부터 ‘해암당’이라는 법호 받음.
- 1957년 오대산 사교암 토굴에서 용맹정진 중에 심경을 계승으로 옳다.
- 1967년 해인총림 유나.
- 1970년 해인사 주지.
- 1979년 해인총림 선원에서 안거(12년 연속).
- 1985년 해인총림 부방장.
- 1987년 조계종 원로의원.
- 1991년 조계종 원로회의 부의장.



조계종 제10대 종정을 역임한 해암 스님.

- 1993년 해인총림 제6대 방장(1996년까지).
- 1994년 원로회의 의장(1999년까지).
- 1999년 5월 조계종 제10대 종정 취임.
- 2001년 12월 31일 원당암 미소굴에서 원적.



해인사 비림에 조성된 해암 스님 부도와 부도탑비.

10년 전 ‘내 얘기를 소설로 써 보라’ 직접 권유 받아 유적 2년간 답사... 공부하다 죽으라던 가풍 본받아야

정찬주 작가가 현대불교의 지면을 통해 해암 대종사의 웅골찬 가풍을 불자들에게 전하게 된다.

푸른 대나무가 겨울바람에 휘청휘청 하늘을 간질이는 12월 중순에 그의 토굴 이불재(非佛齋)에서 구도소설 해암 스님 이야기 ‘가야산 정진불’을 설계하고 있는 정찬주 작가를 만났다.

정찬주 작가는 10년 전인 1998년 해암 대종사로부터 “내 얘기를 소설로 쓸 수 없나?”라는 질문을 받은 바 있다고 한다. 정찬주 작가는 “불교TV ‘뜰 앞의 잣나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였습니다. 4시간 동안의 인터뷰가 끝난 뒤에 푹 던지시듯 하신 말씀인데 그게 씨앗이 돼 이렇게 소설을 쓰게 됐습니다”라고 회고한다. 정찬주 작가는 해암 대종사가 자신의 가슴에 심어준 그 ‘씨앗’이 발아되기까지 10년 동안 한 번도 대종사를 잊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 해암 대종사에 대한 기억이 더 있으신지요?

“해암 큰스님을 떠올릴 때마다 제 마음이 밝아집니다. 저는 큰스님을 읽고 이야기를 들으면서 두타제일 가섭존자를 생각했습니다. 큰스님의 일생은 철저한 두타행의 연속이었잖아요. 요즘 우리 사회는 수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만, 큰스님처럼 철저하게 수행을 지도하시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저에게 있어 큰스님은 언제나 살아계시는 스승입니다. 중국의 선종 유적지들을 순례할 때나 인도의 성지를 순례할 때 늘 큰스님을 떠올리곤 했습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수행에 모든 것을 바친 구

으로 떠나시길 반복했습니다. ‘내가 했다’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으려는 철저한 무주상의 정신을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태백산의 동암과 남해 운문사와 열불암 설악산 오세암 등을 답사했고 가는 곳마다 큰스님의 뜻을 읽으려 노력했습니다.”

– ‘가야산 정진불’이라는 제목은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글자 그대로입니다. 큰스님께서서는 가야산으로 출가하셨고 제방에서 정진하시다가 다시 가야산에서 법을 일으켰습니다. 가야산의 중심도량인 해인사에서 유나를 거쳐 부방장, 방장 그리고 조계종 종정까지 지내셨으니까요. 무엇보다 원당암 달마선원을 근거로 재가자들의 선수행을 극진하게 독려하신 점이 다른 큰스님들과 다른 점입니다. 아무튼 큰스님께서서는 70이 넘는 노령에도 대중생활을 하시는 등 가야산에서 철두철미한 공부의 길을 뒤흔으셨으니 ‘가야산 정진불’이란 제목은 그대로 큰스님의 생애와 가르침을 상징한다고 봅니다.”

– 소설의 전개 방식은 어떻게 설계하셨는지요.

“이 소설은 한사람이라도 제 데도하려 무진 애를 쓰시던 큰스님의 간절지심이 얼마나 독자들에게 전달되느냐에 성패가 달려 있다고 봅니다. 이 소설을 계기로 공부하다 죽을 각오를 하는 사람이 늘어난다면 저는 큰스님께서 심어주신 ‘씨앗’을 잘 가꾼 보람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주간신문에 연재를 하는

“해암 큰스님 생애 시각적으로 표현”

화가 최문정

“해암 큰스님의 일생을 통해 인간의 근원과 우주의 진리를 탐구하는 대장정에 동참하게 돼 기쁩니다. 소설이 해암 큰스님의 생애를 다룬다면, 저는 그림을 통해 큰스님의 생애 가운데 가장 절정이고 핵심적인 부분을 시각적으로 표현하겠습니다.”

‘가야산 정진불’ 연재의 삽화를 맡은 최문정 화백(사진)은 중앙문화회화제 제48호 단청장 전 수교육조교다. 단청장이 소설의 삽화를 그린다는 것이 얼른 이해하지 않는 일이지만 최 화백은 전통불화에 대한 탄탄한 기반을 토대로 비구상에 발달한 솜씨를 보여준다. 그의 실험정신과 새로운 분야에 대한 도전의식은 전통미술과 현대회화

를 망라한 화단의 주목을 받고 있다.

“그저 소설을 이해시키는 삽화로 작업할 생각은 없습니다. 소설의 한 부분으로 존재하는 삽화가 아니라 소설의 핵심을 모티브로 새로운 이야기를 풀어 나가는 역할로서의 삽화를 추구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소설과 그림이 다른 형식으로 같은 얘기를 하는 효과를 보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다만, 소설과 그림이 최대한 조화를 이뤄 독자들에게 최대한의 감동을 안겨줘야 할 것이므로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나도 두타행을 한다고 생각해야죠.”

이화여대, 동국대 문화예술대학원을 거쳐 고려대 정책대학원 CRO 과정을 이수한 최 화백은 만



봉 스님에게 불화를 배웠다.

임연태 기자

공부하다 죽어라

조계종 제10대 종정 해암 대종사의 선기가 살아 있는 수행 도량 원당암에서 ‘성불’의 길을 닦아 보십시오. 재가자 선수행의 중심도량 원당암은 영가단에만 년위패를 모심으로써 생사가 둘 아닌 도리 속에서 열반정정을 이루는 수행한 원력의 도량입니다.

정진안내

- 철야 용맹정진 매월 1, 3주 토요일 오후 7시 ~ 새벽 3시
- 7일 철야 용맹정진 여름·겨울 두 차례 운영
- 동안거결제 음력 10월 15일 ~ 1월 15일
- 산철결제 음력 2월 1일 ~ 3월 29일
- 하안거결제 음력 4월 15일 ~ 7월 15일
- 산철결제 음력 8월 1일 ~ 9월 30일

만년위패봉안대불사 합동천도제

매년 설날, 중앙절(음력 9월 9일), 백중, 추석, 매월 음력 15일(아미타재일)

해인사 원당암 | 경남 합천군 가야면 치인리 10번지
전화 055)932-7308 / 팩스 055)931-7515 www.wondangam.org

“사람되기 어려운데 이미 되었고 불법 듣기 어려운데 이미 들었으니 내 몸을 금생에 제도 못하면 어느 생을 기다려서 제도 하리요.”

– 해암 대종사 법어

